

Economy Brief

트럼프식 내러티브 경제학

Economy Brief

[경제] 박상현 2122-9196 shpark@imfnsec.com

Check Point

금융시장이 경제지표보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거나 변동성이 확대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 소위 트럼프식 내러티브 경제가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강해짐

트럼프식 내러티브 경제는 단순한 흐름이 아니라 비전통적 미디어의 발달과 더불어 AI 사이클 확산과 보급율 증가 등으로 내러티브 경제가 앞으로 금융시장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

트럼프 대통령 내러티브에 휘둘리는 금융시장

전쟁 재개를 얘기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을 다시 언급하면서 유가 및 금융시장 분위기가 돌변했다. 트럼프는 백악관 취재진에게 "우리는 진짜 (최종 합의) 경계선 바로 위에 있다"며 "믿어도 된다"고 이란과의 종전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다. 미국 매체 약시오스도 미국과 이란이 모두 서명할 종전 '의향서'를 중재국이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종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은 다른 매체에서도 확인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유력 매체 알 하다스도 종전 협상과 관련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이 최종 합의문 초안을 발표하기 위해 내일 이란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며 양측은 합의문 최종 문구를 마무리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연합인포맥스, 5월 21일 기사 참조)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관련 긍정적 내러티브로 유가(WTI)는 6% 가까이 급락하는 동시에 그 동안 급등하던 국채 금리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달러화 역시 약세로 전환되었다.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안도 랠리가 펼쳐진 것이다. 물론 이전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고 언제든지 발언은 바뀔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시점부터 금융시장이 경제지표보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거나 변동성이 확대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소위 트럼프식 내러티브 혹은 내러티브 경제가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참고로 내러티브 경제학(Narrative Economics)이란 대중의 입소문, 언론,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전염병처럼 확산되는 '대중적인 이야기(내러티브)'가 실제 경제 현상과 시장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연구하는 경제학을 지칭한다. 내러티브 경제학의 핵심 작동 원리는 이야기의 전염성과 대중의 비합리적 결정이다. 실제로 전통적인 레거시 언론매체보다 SNS 등의 급속한 발달 등으로 '입소문과 서사' 등이 경제와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SNS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러티브 경제학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다.

내러티브 경제학이 촉발하는 부작용도 분명히 있다. 자산시장의 거품과 경기 사이클의 변동성 확대다. SNS 혹은 유튜브를 통해 떠도는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가 자산가격의 급등락을 촉발시키는 동시에 과도한 기대 혹은 공포감을 자극하면서 경기사이클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현상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이후 금융시장이 자주 겪게 되는 현상이다. 타코(TACO), FAFO 등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및 행동을 빗댄 새로운 신조어는 늘 금융시장 주변을 맴돌고 있다.

이란 문제뿐만 아니라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식 내러티브 경제 흐름은 더욱 강화될 듯

이란과의 종전과 관련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금융시장을 달래기 위한 또 다른 내러티브에 그칠지는 미지수다. 다만,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크게 약화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통한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무엇보다 고유가 흐름을 미국 경제가 얼마나 감내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는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을 재개보다 종전을 통한 빠른 출구전략을 모색할 가능성은 있다.

한편 미국과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떠나 트럼프식 내러티브 경제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이 크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트럼프 대통령의 내러티브가 더욱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강력한 AI 투자사이클 및 AI사이클 확장성에 대한 강한 기대감이 주식시장 및 경기를 강력하게 떠 받치고 있지만 한편으로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동시에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내러티브 혹은 트럼프식 내러티브 경제 강화는 당연히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무엇보다 트럼프식 내러티브 경제는 단순한 흐름이 아니라 비전통적 미디어의 발달과 더불어 AI 사이클 확산과 보급율 증가 등으로 내러티브 경제가 앞으로 금융시장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박상현)
-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